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5. 3. 17. Vol. 11

■ 농정이슈

TPP 주요 동향 등

■ 정책브리핑

유기농산물산업 활성화 방안

■ 연구지원

한·미 FTA 발효 3년차 교역·투자 동향

■ 현장여론

해외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례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 TPP 주요 동향

- [USTR 부대표 웬디 커틀러 인터뷰, 3.10.] 방한 기간(3.8~10.) 한국 정부와 하와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TPP 협상의 내용·상황에 대해 업데이트된 정보 요구, “한국의 TPP 참여를 적절한 시점에 논의할 수 있을 것” 언급

※ 한편 윤상직 장관, 브리핑(3.11.)에서 TPP 참여 관련 “TPP가 글로벌 밸류체인인 만큼 빠지면 불이익이 크다.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언급

- (USTR 부대표 대행, TPP 협상 마지막 단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오찬 간담회(3.9.)에서 TPP 타결 임박 시사

• “TPP 협상을 끝낼 단계에 가까이 와 있다”면서도 “지적재산권 보호, 공기업, 관세 등 아직 일본 정부와 이견을 줄이지 못한 분야가 있다”
• “TPP와 같은 협상의 마지막 이슈를 해결하려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 (허쉬 USTR 대표보, 한국, TPP에서 중요한 역할 기대) ‘한미 FTA 발효 3주년 기념 콘퍼런스’ 기조연설(3.12.) 통해 TPP는 미국뿐 아니라 아태지역 파트너들의 경제에도 매우 중요, 한미 양국은 향후 TPP 협상에서 다뤄질 많은 이슈들에 대해 상호 호혜적 접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자료 : 내일신문NEWSis연합뉴스(2015.3.10.) / 아시아경제(2015.3.11.) / news1NEWSis머니투데이서울경제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한겨레한국경제(2015.3.12.) / KBS-SBS-YTN-연합뉴스(2015.3.15.)

- [국제무역연구원, TPP 협상 상반기 타결 가능성, 대응전략 시급*] △2016년 미국 대선과 일본 참의원 선거 등 참여 주요국의 정치 일정으로 인해 올 상반기가 사실상 협상 타결의 데드라인, △상반기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 미국 대선 정국 본격화로 TPP 협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 높아 오히려 참여국 더욱 가속화 전망
※ ‘TPP 협상 상반기 타결 가능성, 한국도 대응전략 마련해야’ 보고서(3.10.)

자료 : 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주경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015.3.11.)

- [정부, 한국-태평양동맹* 파트너십 강화 의지 천명**] 조태열 외교부 차관, 태평양 동맹과 한국은 환태평양파트너십의 주춧돌로서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

※ Pacific Alliance: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자유이동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태평양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 확대 위해 2012.6. 출범, 회원국은 페루, 멕시코, 칠레 및 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 우리나라는 2013.6. 옵서버로 가입

※ ※ 국제전략연구소(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주최 「카르타헤나 대화: 환태평양 정상회의(Cartagena Dialogue: The Trans-Pacific Summit)」(3.6.~8.) 참석해 기조연설(3.7.)

자료 : 내일신문-news1NEWSis매일경제세계일보아시아경제(2015.3.9.)

참고 : 외교부 보도자료_「조태열 차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과의 파트너십 강화 의지 천명 - 국제전략연구소(ISS) 주최 「카르타헤나 대화: 환태평양 정상회의」 참석」(2015.3.8.)

㉔ 농정이슈

□ 지자체, 한·중 FTA 대책 대정부 건의 내용

- [지자체, 한중 FTA 대책,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 방안 집중 제안] 10개 시도(63건*)가 중앙정부에 제안한 대책자료는 한중 FTA 국내대책 수립 중인 농식품부에 전달
 - ※ (지역별) 전남 36, 충북 5건, 충남·경남 각 4건, 경기·강원·경북 각 3건, 인천 2건, 대전·울산·제주 각 1건
- (핵심 피해보전 방안·무역이득공유제 반드시 도입과 직불제 확충)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농업비중이 높은 전남·경북에서 제안,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요구*
 - ※ 피해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발동요건 까다로워 피해농가 지원이 미흡한 만큼, 기준 가격·지급단가 같은 발동요건 완화해야
-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받기반정비 강화, 시설현대화 사업 확대, 농업용 전기요금 인하, 면세유 확대 등

자료 : 농민신문(2015.3.11.)

□ 한·중 FTA 원스톱 지원센터 「차이나 데스크」 출범

- [차이나 데스크 개소식, 3.11.] △발효 전...중국측 품목별 양허내용, FTA 활용방법 등 포괄적인 정보자료 제공 및 비즈니스 컨설팅 등 중점, △발효 후...한중 FTA 활용, 수출산업과 지원 판로개척,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후검증대비 분야까지 원스톱 지원
- 자료 : KBS-YTNnews1·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아투데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5.3.11.) / 세계일보(2015.3.12.)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한중 FTA 활용, '차이나 데스크'가 도와드립니다. - 「차이나데스크 개소식」 및 「2015 통상산업포럼 한-중 FTA 중소기업 활용 워크숍」 개최-」(2015.3.11.)

□ 농식품부, 이스라엘 농업 6차산업 해답

- [농식품부, 이스라엘과 함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농식품부 장관, 이스라엘 방문(3.8~10.) 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3.11.)에서 **이스라엘 농업에서 6차 산업화 답 찾으려 한다**고 언급

- 이스라엘의 키부츠, 모샤브 등의 사례를 우리나라 들녘경영체, 6차 산업화에 접목시켜 농가의 경쟁력 향상 방안 마련
- 우리나라 ICT 융복합기술과 이스라엘의 농작물 수확 후 처리 등 과학 영농 기술 분야 협력 통해 세계시장 공동진출 기반 마련
- 이스라엘 농식품기업 및 종자, 유통, 관개시설 등 농업 기업들의 한국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투자 및 기업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자료 : 국민일보·내일신문·NEWSis·연합뉴스·이데일리(2015.3.12.) / 이투데이·동아일보·축산신문(2015.3.13.)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 이동필 장관, 이스라엘과 ICT 융복합 방안 모색」(2015.3.8.), 「농식품부, 이스라엘과 함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에 박차」(2015.3.12.)

㉔ 농정이슈

□ 농식품부, 쌀 수출추천제 폐지...국산쌀 수출 자유화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3.11.] 쌀 수출 시 농식품부 장관 추천을 받도록 하는 '쌀 수출추천제'와 '미국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 폐지함에 따라 **쌀 수출 절차 간소화**
 - ※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 수입 제한하면서 물량, 가격 등 제한하여 왔으나, 2015년 관세화 시행에 따라 그 필요성이 낮아진 측면 반영
 - ※※ 수출 물량 및 가격 제한, 수출 후에는 수출이행 실적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 자료 : KBS(2015.3.10.) / 내일신문·news1·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중앙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2015.3.11.) / 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5.3.13.)
-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쌀 수출 추천제 폐지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3.11.) -」(2015.3.11.)

□ 농식품부, 사료 허위·과장 표시행위 집중 단속

- [사료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에 대한 지도단속*]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위해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표현 등 애완동물사료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
 - ※ 기간 및 대상: 2015년 사료검사계획에 따라 3.10.~12.31.까지 사료가 유통되고 있는 전국 대형마트, 동물병원, 대리점, 제조공장 등 중심,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
- 자료 : SBS-YTNnews1·NEWSis·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투데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5.3.10.)
-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사료 표시사항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 -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에 중점 -」(2015.3.10.)

□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 개정 추진

- [정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 개정' 추진] 농수산물 가공품 사용원료 원산지 예외표시인 '수입산'을 '수입국가명' 표기로 전환
 - (농식품부*) 수입산 표기 옆에 국가 3개 기재토록...소비자 알권리 강화
 - (쌀 가공식품업계**) 수급 상황 따라 국가 변경 잦아...비용 증가 불가피
 - ※ 수입산 표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5월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
 - ※※ 가공용 MMA 쌀의 경우 제조업체가 산지 선택해 구매할 수 없고, 표기방법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가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데다 유통의 혼선 초래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5.3.10.)

㉔ 농정이슈

□ 농업용수 수질개선 위해 161억 원 투입

- [농업용수 수질개선, 161억 원(2014년 대비 25억 원↑) 지원 확정] GAP인증 및 친환경농산물 수요 확대에 대처,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확대(800 → 950개소) 및 수질개선사업 집중 추진

- (주요 내용) △지자체별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노력 점검평가해 수질개선사업비 우선 지원, △수질개선사업 고도화, 퇴적물 측정망 신설, 농업 비점오염원* 저감기술 현장 적용 등 수질개선방안 검토추진,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178개소) 지정

※ 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자료 : NEWSis아시아경제·아주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헤럴드경제(2015.3.9.) / 세계일보(2015.3.10.) / 농민신문(2015.3.11.)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확대 및 수질개선사업 집중 추진에 161억 원 투입」(2015.3.9.)

□ 농업인 맞춤형이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 [농식품부, 2015년 보육사업 지침 개정*] 농업인 맞춤형이 부부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거쳐 보육사업 지침에 반영

※ 취업증빙서류에 농업 종사자 관련내용 신설: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포함

자료 : KBS·YT(2015.3.11.) / news1·NEWSis·경향신문·매일경제·머니투데이·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이투데이(2015.3.12.) / 농민신문(2015.3.13.) / 농촌여성신문(2015.3.16.)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업인 맞춤형이 자녀도 어린이집에 입소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2015.3.12.)

□ 농촌재능나눔 대상 지자체 선정

-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지원대상 지자체 선정결과 발표, 3.13.] 17개 시·군 선정*,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재료·교통·바식비 등 2,500만 원 지원받게 되며, 인근지역 도시민의 재능을 농촌마을의 수요에 연계해 지속가능한 재능나눔 기반 강화

※ 강화군, 영월군, 양주시, 증평군, 아산시, 청양군, 남원시, 순창군, 정읍시, 강진군, 곡성군, 보성군, 함평군, 군위군, 영주시, 영천시, 창원시

자료 : news1·아주경제·연합뉴스(2015.3.13.) / 농촌여성신문(2015.3.16.)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지역의 문제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해결한다 - 전남 곡성군 등 17개 지자체, 2015년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선정 -」(2015.3.13.)

㉔ 농정이슈

□ 농식품부, 국민축산포럼 발족

- [‘(가칭)국민축산포럼’ 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3.9.] 축산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위해 학계·언론계·소비자·생산자 단체·정부 관계자 구성*, 축산 현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
※ 학계(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등), 언론계(윤봉중 축산신문 회장 등), 소비자(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생산자(이창호 축산단체협의회회장 등)

자료 : NEWSis·아시아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2015.3.9.) / 농민신문(2015.3.11.) / 한국 농업신문(2015.3.13.)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축산업의 미래를 위한 소통의 場 열린다 - (가칭)국민축산포럼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2015.3.9.)

□ 농식품부,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 [시설원에 분야 ICT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3.23.~4.12.] 시설원예산업 육성 방향과 조화된 종합계획 필요, 현실적·체계적 시설원에 분야 ICT 활성화 방안 마련
- [발농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반정비방안 대국민 의견수렴, 3.23.~4.10.] 발농업 경쟁력제고 위한 기반정비 사항, 밭 경지정리에 대한 의견 수렴
-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대국민 의견수렴, 3.17.~4.6.] 4대강 보의 풍부한 수자원을 가뭄상습 농경지에 효율적 활용 위한 방안 의견 수렴

참고 : 농식품부 공자·공고_「「시설원에 분야 ICT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공고」(2015.3.9.),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공고」, 「발농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반정비방안」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공고」(2015.3.10.)

□ 산림청, 2015년 사유림 8,620ha 매수

- [8,620ha 사유림 매수*...667억 원 투입]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활용기반 확충,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위해 2030년까지 임업선진국 수준(미국 33%, 독일 33%)으로 국유림 점유비율*(32%, 2,042천ha) 제고

※ 사유림 매수 대상지: 기존 국유림과 연결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제주곶자왈,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 (1995) 1,398(21%) → (2006) 1,497(23.4%) → (2014) 1,595천ha(24.8%)

자료 : KBS(2015.3.12.) / news1·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5.3.13.)

참고 : 산림청 보도자료_「산림청, 올해 667억 원 투입... 사유림 8,620ha 매수 - 전체 산림면적 중 국유림 24.8% 차지, 2030년까지 임업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2015.3.13.)

정책브리핑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3.12.)

□ 개요

- **[농식품부,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2015]**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국내수요 증가, FTA/TPP 등에 따른 시장개방·규모 확대에 선제적 대응
 - **(필요성)** 유기가공식품 세계 시장규모(2012, 320억 달러)의 급성장세*와 함께 국내시장 지속적 확대 전망, 반면 국내 유기가공식품 원료** 대부분 수입산, 동등성 인정 협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산업으로서 입지확보 미흡
 - ※ 유기식품시장은 5년간 연평균 5.5% 성장, 전체 식품시장 성장률의 2배 시현
 - ※※ 수입산 원료 비중 85%, 수입산 소비자 선호도도 높은 상황(충남대, 2014)
 - ※※※ 미국(2014.6.30.)·EU(12.19.) 협정 체결, 일본·호주 등 5개국과 동등성 검증작업 중
 - **(비전)** 유기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Premium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 **(목표)** △국내 유기가공식품 매출액: (2017) 7천억 원 → (2020) 1조 원(2013, 4,908억 원), △수출: (2017) 1천만 달러 → (2020) 2천만 달러 달성
 - **(의의)** 1차 농산물 생산·유통에 집중되었던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친환경농업 정책을 공세적으로 전환

• 유기식품 = 유기농산물 +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화학비료 사용 없이 재배된 생산물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산물을 재료 또는 원료로 제조·가공

□ 주요 내용

〈산업 생태계 조성〉

- **[산업 협의체]** 농식품부, 업계, 행정기관, 소비자 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유기가공식품산업 발전협의회 구성
 -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시장 확대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유기가공식품 산업기반 육성 방안 논의
 - ※ 업계 수요 반영, 가칭 '유기가공협회' 구성 및 의견 수렴 방안 모색
 - **(수출협의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역·품목별 소협의체 운영

- **[원료 안정공급]** 유기농 전문단지(2015~2017년, 3개소), 종자·재배기술 지원(10개 품목 대상, 2015.상) 및 원료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 **(광역친환경단지 개보수 지원)** 유기농 전문단지로 확대, 콩·밀 등 10개 품목 대상 가공원료 종자개발 방안 수립(2015.상)
 -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과 연계)** 품목별 생산량·주산지 등을 식품·외식업체에 제공
- **[업체 경쟁력]** 창업·맞춤형 컨설팅 등 초기 지원 및 시설 개보수 지원 등 기업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찾아가는 기업 지원 서비스」 강화, 지역 영세 가공업체 애로해결
 - ※ 「aT 기업지원단」과 연계, 경영·기술 전문가를 현장기동반으로 구성·운영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개보수 자금, HACCP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추진(2014: 2 → 2017: 10개소)
- **[전문인력 양성]** 인재 수요조사·멘토링 제도 등 활용,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

〈창의적 산업기반 구축〉

- **[R&D 지원]** R&D 지원체계를 가공식품업체 지원 중심으로 개편, 분야별 핵심 기술과제 발굴(2분야, 5개) 통한 산업기반 확충
 - **(추진체계)** 가공식품 R&BD 네트워크* 구성, 신규 개발 기술 발굴
 - ※ 농식품부·산학연 전문가·대표조직·가공생산자·협회 등으로 구성
 - **(핵심기술 과제*)** 유기가공식품산업 내부의 가공·유통기술 개발 우선 추진하되, 전후방 연관 산업 기술개발과 연계
 - ※ 천연첨가물, 기능성 소재, 생산성 제고, 유통기한 증진, 품목별 특정 포장
 - **(지원사업)** 사업목적 달성에 최적화된 3개 방식(프로젝트, 단가·소액, 중장기 기획과제)으로 장·단기 R&D 지원
- **[6차 산업화]** 지역자원 활용한 유기농 테마 6차 산업화 지원
 - 유기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교육 등 원스톱 체험이 가능한 유기농복합서비스 단지사업 지원(2015: 1개소, 총사업비 200억 원)
 - 2015년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총 사업비 155억 원)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단위 유기식품 소비 붐(boom) 조성

정책브리핑

-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및 마을 대상, 가공시설 및 S/W, 홍보·마케팅·품질관리 사업과 연계* 집중 지원
 - ※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농촌개발사업 대상자가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지구와 연계하여 사업을 신청할 경우 평가 가점 부여(사업설명 시 홍보)

〈소비시장 확대〉

- **[수출활성화]** 수출 환경정비 및 시장별 수출 단계별 지원(수출정보 → 유망품목 발굴 → R&D, 경영, 홍보)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시장 확대 가능성, 우리 제품의 우수성 홍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정 추진
 - **(수출정보)** 유망품목별 소비패턴·시장접근 가능성(검역, 비관세장벽 등)·수출국 도소매 유통구조 등 정보 및 수출전략 제공
 - **(경영지원)** 수출업체 전문 투자펀드 조성(2014, 100억 원), 경영위험 부담 완화 위한 수출 보험 지원 확대(2014: 보험료의 90 → 2015: 95%)
- **[내수활성화]** 대량 수요처 발굴, 유통채널 확대 통한 시장 확충
 - **(신시장 발굴)** 소비계층 분석(2015.상) 통한 전략적 내수시장 확대
 - ※ (예시) 고학력·맞벌이 부부, 아토피 치료 등 건강 Care용, Kids 마케팅
 - **(직거래 채널확대)** 온·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확대
 - **(홍보)** 유기가공식품의 차별적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 **[상생협력]** 기업·행정·생산자(단체, 마을) 협력, 유기농산물 가공 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및 소비 촉진
 - **(소비 통한 환경 보전 기여라는 “착한소비” 확산)** 기업-생산자간 상설협의체 구성, 안정적 소비 매개체로 활용
 - ※ (사례) 롯데슈퍼 유기농 매장 설치 계획: 기업-정부-농업인 MOU 체결(2015.상), 유기농산물 매입 및 점포수 확대 예정(2015: 매입액 60억 원/점포수 200점 → 2020: 700/375)
 - **(유기농산물 활용한 유기가공식품 가치 전파)** 1사1촌 등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 ※ (예) 기업-정부-농업인 MOU 체결, 유기농산물 매입 및 점포수 확대 예정(2015.상)

연구지원

연구지원 한·미 FTA 발효 3년차 교역·투자 동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5.3.13.)

한·미 FTA 의의

- **[한미 FTA 의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로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과의 안정적인 교역기반 확보에 기여
 - **(거대시장 확보)**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2.5%(17.4조 달러, 2014.10. IMF자료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나라의 **2위 교역상대국***
 - ※ 2014년 주요국과의 교역규모 비중: 중국(21.4%), 미국(10.5%), EU(10.4%), 일본(7.8%)
 - ※ 2014년 주요 수출대상국: 중국(25.4%), 미국(12.3%), EU(9.0%), 일본(5.6%)
 - ※ 2014년 주요 수입대상국: 중국(17.1%), EU(11.9%), 일본(10.2%), 미국(8.6%)
 - **(FTA 활용) FTA 발효 3년차 한·미 FTA 수출활용률* 76.2%**, 既발효 FTA 전체 수출활용률(69.0%)보다 높은 편
 - ※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수출액 중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품목의 수출액 비중(추정치)
- **[향후 계획]** 미국 등과의 FTA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FTA 성과 계속 점검, 지원정책 내실 있게 추진
 - **(기업의 FTA 활용)** 既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정책을 현장 맞춤형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제고
 - ※ FTA 활용 제고,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원산지기준에 부합하는 新제품 개발 지원
 - **(투자유치 활성화)** 한·중 FTA 타결 계기로 한·미 FTA와의 시너지를 활용한 중국 진출 거점으로서의 투자유치 활성화
 - ※ 유망분야 중심 유치활동 강화, 양자채널 활용, 정보제공 강화

한·미 FTA 발효 3년차 교역 및 투자 동향

- **[2014년 교역규모]** 전년대비 **11.6%↑**
 - ※ 혜택품목 6.7%↑, 비혜택품목 15.6%↑

연구지원

- (수출) 전년대비 13.3%↑(혜택품목 4.3%↑, 비혜택품목 19.0%↑)
- (수입) 전년대비 9.1%↑(혜택품목 9.0%↑, 비혜택품목 9.1%↑)

○ [2014년 미국의 對韓직접투자] 전년대비 2.4%↑

※ 미국의 對韓투자는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치되어 국내산업 선진화에 기여

한·미 FTA 발효 3년차 대미 농수산물 교역 동향

○ [2014년 수출] 전년대비 8.2%↑

- (분야별) 농산물(전년대비 12.0%), 축산물(3.2%), 임산물(19.0%) 수출이 FTA 발효 후 증가 지속
- (품목별) 혼합조제식료품(25.1%), 권련(19.1%), 소스류(18.9%) 등 가공식품 전년대비 14.8%↑

○ [2014년 수입] 전년대비 30.2%↑

- (분야별) 농산물(39.9%), 축산물(27.7%), 수산물(7.2%)의 전년대비 증가
※ 농산물 수입증가는 2013년도에 악화된 미국의 작황부진이 '14년도에 회복됨에 따른 기저효과로 해석됨.
- (품목별) 쇠고기(32.3%)·돼지고기(28.7%) 등의 수입이 전년대비 증가, 오렌지는 전년대비 감소(△25.6%)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농식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1년 전 (2011)		발효 1년차 (2012)		발효 2년차 (2013)		발효 3년차 (2014)		전년대비 증감율(%)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 농산물	395	5,260	430	4,411	464	3,637	520	5,089	12.0	39.9
- 곡물	10	3,240	9	2,375	10	1,442	9	2,760	△7.6	91.4
- 과일채소	60	440	67	593	74	616	74	610	0.4	△0.9
- 가공식품	326	1,579	353	1,443	381	1,580	437	1,719	14.8	8.8
축산물	21	1,717	27	1,411	35	1,471	36	1,878	3.2	27.7
임산물	15	893	16	793	23	853	28	843	19.0	△1.1
수산물	181	155	191	177	218	221	217	237	△0.2	7.2
□ 전 체	612	8,025	664	6,792	740	6,182	801	8,047	8.2	30.2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REI 해외리포트

해외현장 리포트

해외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례

자료: KREI 해외리포터를 대상으로 장익정보실 자체 조사

※ 시의적절한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나 관련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구성된 KREI 해외리포트가 보내온 현장 리포트입니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본 자료가 연구와 정책에 활용되길 바랍니다.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5. 1. 1. ~ 2. 26. (총 7건)
- 수집대상: KREI 해외리포트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수집

해외 현장 리포트

구분	성명	국가	주요 내용
1	황선화	러시아	- 당근, 감자, 양배추 등 채소는 러시아 전역으로 차량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음. 배송료는 고객의 창고까지의 거리, 화물 중량,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주문량 10톤 기준으로 평균 kg당 2~3 루블을 지불하고 있음. - 축산물, 축산 부산물 등은 온라인 판매로 주문이 용이한 편임. 주로 밀, 호밀, 보리, 해바라기, 옥수수, 메밀, 쌀, 콩 등 알곡류는 'zernotrader' 사이트에서 구입 또는 판매를 원하는 물품 정보와 거래형태를 기재하면 해당 내용을 참고해 거래를 제안하는 업체가 있을 때 기업 간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임.
2	이주관	미국	- 미국 내에서 운영하는 'Farmers Web'은 2012년부터 시작해 레스토랑, 호텔, 학교, 소매상, 식당 관계자를 바이어로 등록하여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생산자들의 개별 사이트를 지역별, 품목별, 농장별, 유기농 여부 등으로 상세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축했음. 이 사이트를 통해 250마일 이내의 농장으로부터 농산물, 축산물 등을 직접 배송 받거나 찾아갈 수 있어 거래가 편리해짐은 물론 실시간 재고관리, 주문량 및 송장관리 등을 관리할 수 있음. - 이 외에 지역 내 생산하는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중소농가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Farmstr', 'Moore Farms and Friends' 등 직거래사이트가 운영 중임.
3	이윤미	일본	- 일본에서 청과물의 유통은 60~70% 정도가 여전히 도매시장을 경유하고 있음. 시장 외 유통과 농산물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시장경유율이 저하되고 도매시장과 도매업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임. -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체계는 서서히 역할을 줄여가는 한편 산지 직거래, 온라인 판매, 농산물 직매소를 통한 판매가 증가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이 확립되어 가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JA타운이 있음. 이외에 기업이 직접 농업에 참여해 원료를 조달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4	석준호	미국	- 미국 북서지역에서 기존 혹은 새로운 온라인 농산물 시장을 일반 협동조합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해 'Idaho's Bounty, Replication & Networking Online Farmers Markets'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로컬푸드 이용, 유통 협동조합, 소프트웨어 시스템 공유, 지역 네트워크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함. - 기존의 참여자들은 전문성과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 운영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신규 참여자는 전국에 있는 관심 있는 그룹에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 소비자들과의 통로로서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5	권희준	폴란드	- 폴란드 농업시장은 특히나 생산자가 분산되어 있어 해당 지역구매자들에게 농산물을 파는 것 외에는 다른 판매경로를 갖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점을 보완한 농업상품교환 전자플랫폼 IGT는 2001년에 시작, 농업인과 기업 간의 표준화된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주고 있음. - 곡물과 고기류의 거래가 가장 활발한 편이며, 농축산물 외에 연료, 강철 등 다른 원자재와 원료를 제공하고 있음. IGT는 이 마켓에 팔리는 상품의 시간과 가격정보를 보여주고 이런 가격은 전자교환 웹사이트에 공고됨. - 제공된 생산품의 저렴한 가격,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발전 체계, 새롭고 대안적인 유통채널, 중간상인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전자마켓플레이스의 주요 장점임.
6	이혜진	프랑스	- 프랑스의 온라인 직거래는 주로 유통기한이 짧은 지역농산물 및 유기농 제품 등의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지역단위의 다양한 인터넷 거래채널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었음. 소비자가 인터넷 주문을 하면 가맹업체에서 물건을 배달해주는 전형적인 온라인 판매방식이며, 점차 농업분야 ICT적용이 부각되면서 무선인터넷망 설치 확대와 더불어 웹으로 연결된 환경에서의 각종 기능을 실험하는 'conncted agriculture(프랑스 농민단체(FNSEA)와 프랑스 통신회사(Orange) 협력)', 브루파뉴 지방의 'AgrETIC' 등의 ICT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이에 따라 농업 및 식품분야에서의 새로운 시장 접근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또한 지역 내 연관분야 전문가들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7	지형진	우간다	- 우간다는 온라인을 통한 상거래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 휴대폰 보급률이 50%에 육박하지만 PC보급률이 낮고, 사용이 일반화 되지 않았으며,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신뢰 형성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임. 일부 선도 상거래 업체들이 생활용품 또는 식품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직접 배달하는 정도로 이제 막 직거래의 시작단계에 있다고 봄. - 우간다의 농업생산성 증대, 기반시설 등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 거래방식이 일반적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개체는 지역농산물 수집상, 대형 도매상, 중개인으로 분류할 수 있음. 우간다 농민의 70% 이상은 자급자족을 하고 있으며 잉여 농산물은 마을시장, 지역시장, 국내시장 등에 직접 나가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 대형 상인들은 농산물의 운송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간다는 농업의 잠재가치가 매우 큰 나라임. 농업소득 향상, 농산물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우리나라와 같은 농산물 도매시장 및 종합유통센터 시설 확충이 필요함.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